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91.86	↓ 코스닥	841.91
	(-42.84)		(-13.74)
↑ 금리 (미국 9년)	3.468	↑ 환율 (원/달러)	1382.20
	(+0.041)		(+9.30)



‘미국채급등’ 주담대 직격탄... 영끌족 이자 폭증 우려

美 고물가·중동불안 등 악재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4.98%로 ↑ 국내 은행채 금리도 0.17%p 올라 신규차주 당분간 고정형이 유리

금리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지고, 중동 정세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22~5.62%,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88~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 고정형 금리가 3.19~5.31%, 변동형 금리가 3.82~5.95%인 점을 고려하면 고정형 금리는 상단이 0.31%포인트(p), 변동형 금리는 상단이 0.13%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의 금리는 3.9%로 이달 1일 3.73%와 비교해 0.17%p 올랐다.

은행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올랐다. 18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64%로 전날보다 0.62%p 올랐다. 2년물 금리는 0.58%p 상승하며 4.98%로 집계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늦춰지자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으로 확대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은 유가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아시아시장에서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43달러로 전날보다 3.81% 올랐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4% 상승한 86.05달러에 거래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오르고 있다. 변동금리의 준거금리인 코픽스의 경우 4개월째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은행들이 조달비용 상승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했다.

여기에 현재 금융당국은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도록 추진하는 상황이다.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타기 위해선 변동형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야 매력적이 있는데,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더 이상 고정형 주담대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세계 3위’

2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2년여 만에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뉴시스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변동형 대출금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분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차주의 경우 우선 고정형 대출을 선택한 뒤 금리가 내려갈 시기 등을 본 뒤 변동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투세 폐지” 국민청원 5.6만명 동의 증권업계 “빨리 결론내야”

관련 시스템 구축 따른 비용 부담 중소업계 내부인력 흡수 우려도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재로한 국민청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다. 증권업계는 이에 동조하면서도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원은 9일만에 빠른 속도로 모여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원 서명 인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5만6525명 명을 돌파한 상태다.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 18일 회부됐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부과 예정인 상황에서 발생한 청원으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이

반 총선에 패하면서 2025년 1월부터 금투세 부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인 고모씨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갈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주주양도세 회피물량이 연말 추가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추가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증권업계도 금투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올해 초 증시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 나서 과세 시스템 구축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에 동감하지만, 일단 금투세 향방이 빨리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울 인구 감소세... 5년 내 100만명 더 줄 듯

13년새 강동구 인구의 2배 줄어 2029년께 900만명 선 무너져

서울지역 인구가 13년여 만에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서울 거주민 수의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9년 앞선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시 지역 인구는 향후 5년 내에 800만명대로 내려온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인구는 938만명으로, 1년 전(942만명)보다 4만명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감소분(12만명)의 1/3을 차지한다.

이 지역 거주민 수는 지난 2000년대에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0년 10월 ‘전 고점’(1032만명)에 달했다. 이후 1~2년간 완만한 내림세 또는 이른바 ‘보합’ 흐름을 보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 왔다. 국

내 총인구 감소는 이보다 늦은 2019년 12월에 시작됐다.

전 고점과 비교하면 서울 인구는 무려 94만명 감소했다. 13년 사이 1032만명의 9.1%가 사라진 것이다. 감소분(-94만명)이 올해 3월말 기준 경기 성남 인구(91만명)를 넘어선다. 이는 또 서울 강동구 인구(46만명)의 갑절 이상이다.

총인구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월 기준 1/5(20.4%)에 달한 바 있으나, 지난달엔 이보다 2.2%포인트(p) 떨어진 18.2%로 집계됐다. 수도 인구의 ‘최고점’이자 역사상 정점은 1992년 12월 기록된 1093만명이다. 이에 비하면 155만명 사라진 것이다. 그 이래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0년 10월에 2차 정점을 만들어냈다.

2019년 3월에 서울 인구는 977만명이었다. 앞으로 줄어드는 폭(-39만명)

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9년께 900만명 선이 무너진다는 산술적 셈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추계는 서울 인구가 2029년 899만명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어 2049년에 추가로 100만명 더 사라진 799만명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조성에 따라 서울 인구는 경기·인천 등지로 계속 유출됐다. 또 2010년대 들어 행정도시 세종으로도 분산됐다. 저출산은 물론, 2010년대 후반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층 거주민의 탈서울 행렬 또한 급격한 감소세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尹 회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논의 전망 /사진 뉴시스
▲ 野 6당 채상병 특검법 합동 추진... ‘거부하면 윤석열 특검 될 것’

▲ 홍준표 “한동훈이尹 배신”... 한동훈 “배신 말아야 할 것은 국민 뿐”
▲ 與, 새 지도부 편성 난항...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긴 신세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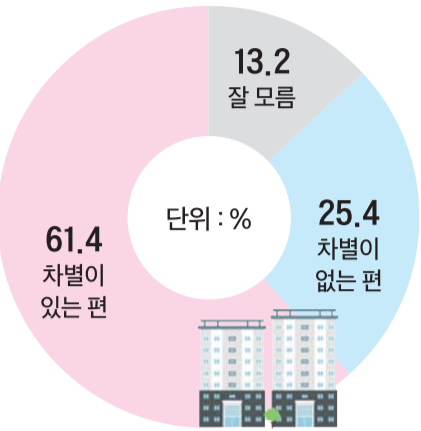
▲ 안철수 “이재명 25만원 지급 공약따르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 /사진 뉴시스
▲ 與 ‘한동훈 책임론’ 분분... “능력 과신해 참패” vs “홀로 여당 향한 폭격 막아”

서울시민 10명 중 6명 “분양-임대 혼합주택, 차별 존재”

서울시의회, 1000명 대상 인식조사 60% “분양-임대 같은 동 거주해야” “다른동으로 분리해야” 의견 31%

가장심각한 차별 32% ‘출입문 분리’ ‘차별적 언행’ 31%, ‘시설 제한’ 13%

〈임대세대 차별 체감 여부 설문조사〉



자료=서울시의회·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혼합주택단지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했으며, 입주자들이 임대세대를 배제하는 행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겼다.

21일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1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혼합주택단지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단지 내 임대세대의 차별이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차별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25.4%, ‘잘 모르겠다’는 13.2%로 집계됐다.

혼합주택단지는 공동주택의 같은 동네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임대 형식으로 거주하는 세대와 분양-임차-구

매한 세대가 함께 사는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6.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27.1%, ‘보통이다’는 23.4%, ‘잘 모르겠다’는 2.8%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차별 방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은 동네 거주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응답 비율은 60.2%로 과반을 넘겼다. ‘실효성이 저조하므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를 다른 동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30.5%, ‘잘 모르겠다’는 9.3%였다.

‘혼합주택단지 1개동 내에 임대세대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체의 30.6%가

‘3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20~30% 정도’ (26.3%), ‘10~20% 정도’ (24.8%), ‘10% 미만’ (9.8%)이 그다음이었다.

서울시민들이 임대세대 차별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출입문·계단 분리 운영 등 임대세대를 구분 짓는 행태’ (32.2%)였다. 이어 ‘관리 사무소·입주민들의 차별적 언행, 시선 등’ (30.7%),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 등의 실질적 제한’ (13.1%), ‘주택 운영에 임대세대 의견 미반영’ (10.6%) 순이었다.

‘임대세대와 같은 동네 거주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해 분양세대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8.2%가 ‘불이익이 있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불이익이 없는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48.5%, ‘잘 모르겠다’는 13.3%

였다.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37.7%)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 ‘시설교체·관리비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 상충’ (32.3%), ‘민원 등 임대세대의 과도한 권리 요구에 따른 역차별’ (14.1%), ‘편의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인한 불편함’ (9.9%)이 뒤를 이었다.

향후 서울시내 혼합주택단지 운영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적용 법규 통합 등 임대주택 관련 법 제도 개선’ (25.1%), ‘임대세대까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 등 의사 결정 창구 확대’ (24.4%), ‘캠페인 등 임대주택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19.4%), ‘임대세대와 분양세대의 거주공간 분리를 통한 갈등 요소 차단’ (18.2%)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작년 영업이익 60% ‘썰렁’... 中 이은 글로벌 전략 통했다

K뷰티, 브랜드 지형 변화

⑤ ‘K뷰티 빅3’ 애경산업

화장품 사업 해외매출 70% 달해 AGE20’s 중국 영향력 제고나서 베트남 뷰티 유통플랫폼에도 입점 인플루언서 라이브 등 경쟁력 키워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애경산업이 올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승부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

의 지난 2023년 매출은 2022년 대비 9.6% 증가한 6689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8.7% 늘어난 619억원이다. 화장품 사업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 매출은 2513억원, 영업이익은 364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4.4%, 27.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특히 애경산업은 중국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둬 중국 실적 부진으로 직격탄

을 맞은 국내 뷰티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은 중국 시장에서 상해 법인을 비롯해 온라인 몰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경산업 대표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의 경우, 지난 2023년 4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 에이지투웨니스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이를 통해 에이지투웨니스는 메이크업 제품에서 기초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중국 내 브랜드 영향력 제고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티몰 내에서 제품군만 확장했을 뿐 아니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했다. 애경산업은 일찍이 티몰 내에 ‘케라시스 플래그십 스토어’, ‘투나 해의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잇따라 선보여 왔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징둥닷컴, 카오라,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등에도 공식 진출했다.

이처럼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한 애경산업은 올해도 중국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은 올해 2월 중국 현지 인기 남성 배우 진철원을 에이지투웨니스 브랜드 모델로 새롭게 발탁했다. 중국 SNS 채널인 웨이보, 사홍수, 틱톡 등에서 약 1842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진철원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현지화 전략은 베트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에이지투웨니스는 지난 2019년 베트남 뷰티 전문 유통 플랫폼 ‘하사키 뷰티앤스프’,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등에 입점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22년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 2023년에는 틱톡, 쇼피 라이브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에이지투웨니스 오리지널 에센스 팩트 EX’가 베트남 틱톡에서 컨실러&파운데이션 부문 주간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신비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경상북도 영주시 영적문화관광재단

2024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2024. 5. 4(토) ~ 5. 6(월)

경북 영주시 문정둔치(시민운동장 앞) 및 선비촌 일원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최종 토론

“가입기간 늘려 보장 키워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줘야”

(보장강화 중심 의견)

(재정안정 중심 의견)

보장강화 vs 재정안정 ‘팽팽’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이견 급일 시민대표단 최종안 공개



한 시민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방문해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가 종료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기초연금 등을 놓고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시민대표단의 최종안이 22일 공개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최종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앞선 세 차례의 토론에서 다룬 ▲연금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연금 구조 ▲기초연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토론은 ‘보장강화 중심’과 ‘재정안정 중심’ 두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보장강화 중심’ 측은 현행소득대체율(40%)을 50%까지 상향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보장 금액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현 청년세대는 노인이 됐을 때 높은 빈곤율에 시달리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10년 가까이 연장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만 노후에 최소생

활비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오는 2060년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2.1% 수준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더라도 GDP 대비 지출액은 13.4%에 그친다”라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인 13.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측은 현행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고, 단계적인 재정안

정화 계획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부과될 부담을 줄이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예상 기금소진연도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전반전 결과를 보여줄 뿐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른 후반전 결과는 보여주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부과방식 보험료율이 35%에서 43%로 25% 가까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치지도 미래세대에게 힘겨운 수준인 만큼 연금개혁이 지체된 와중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두고 양 진영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현행 수급 기준(소득 하위 70%)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빈곤 감소와 국민연금의 보장강화라는 두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그 역할이 확대됐

을 때 기초연금의 역할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인 빈곤의 해결”이라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대표단은 최종 질의응답을 마치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22일 공개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시민대표단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과 숙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엔비디아, 주가 10% 폭락

19일 기준 762弗... 단기조정 시각 우려 삼성전자 등 자체 시칩 개발 영향도

엔비디아(NVIDIA) 주가가 하루 사이 10% 폭락했다. 단순 조정이라는 시각 속에 탈(脫) 엔비디아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도 이유라는 분석이다. 올 1분기 엔비디아에 대항할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오픈AI를 비롯해 M S,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보다 10% 급락한 762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2월21일 기록한 674.69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달 25일 950.02달러 대비 24.6% 하락했다.

이번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TSMC가 올해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조정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

디아·테슬라·메타 7개 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7) 소속 기업 중 다수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타난 수익화가 더해지며 하락세에 가속화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탈 엔비디아 선언이 이어졌다. 삼성전자도 독립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칩 설계 관련 연구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seoh@

“개인투자자 관심 증명... 다시 유예라도”

» 1면 ‘금투세 폐지 국민요청’서 계속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6개월 정도라고 예상하면서도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간이야 만년쯤 걸린다고 말하지만 이런 일정을 소화하려면 추가인력도 필요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중소증권사들은 내부 인력이 흡사 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국민청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로 끝나기에 국회 본회

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금투세에 관심이 많은지 증명된 것”이라며 “22대 국회 개인 이후 다시 청원이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대 국회에도 금투세 폐지 관련 청원을 이어가야 한다”며 “폐지는 아니라도 다시 유예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kova@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이사 남보라

홍보이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088(2024.3.11~2025.2.28)
 위 정보는 내부망에 기재된 대로 관련 상세를 9개 적용합니다. (연간소득 1억 원) 노란우산은 현금보유액에 따라 계급보유금까지 보호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가입부기 검토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운영자는 공적 공제금도 10%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보유를 위해 해 별다른 부담금 포함인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심기·10분 소등 캠페인... 유통업계, ESG 경영 '활발'

롯데마트, 커피박 친환경 화분 만들기 GS리테일, 에코크리에이터 기부금 롯데호텔앤리조트, 10분 소등 진행 현대백,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 확장

4월 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특히 유통기업들이 지속가능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환경 보호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친환경 봉사활동에 나섰다.

롯데마트 임직원으로 구성된 샷데 봉사단은 지난 1일부터 3주간 각 점포 인근에 위치한 아동복지기관에 방문해 '커피찌꺼기(커피박) 친환경 화분 만들기' 활동 교실에 참여했다.

해당 활동은 커피박을 활용한 화분 제작 및 커피박 쓰임 용도 교육을 진행해 자원 순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롯데마트, 슈퍼 관계자는 "고객들의 생활 속에 친환경 문화가 확산 될 수 있



지난 12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왼쪽에서 6번째)과 유통군HQ 임직원들이 시티 플로깅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롯데 유통군HQ

도록 상품 개발, 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친환경 문화를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지구의 날을 앞두고 '그린 행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에코크리에이터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환경재단에 성금 3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 GS리테일이 2019년부터 매년 기탁한 성금 총액은 18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GS리테일과 환경재단이 환경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지원·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에코크리에이터 6기 모집 기간은 6월 14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청소년, 일반(성인) 2개 부문이다. 청소년 부문은 5인 이내 10팀을 선발한다. 환경 메시지가 담긴 10분 이내 환경단편영상 순수 창작 시놉시스나 촬영 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부문은 15팀을 선발하며 환경을 주제로 한 10분 이내 단편 영상 시나리오, 슷품영상 실행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곽창현 GS리테일 대외협력부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

양한 관련 활동을 선보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에 소등 캠페인 '별과 함께 10미닛(10 Minutes)'을 마련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곳에 이르는 국내 전 호텔·리조트에서 동참한다.

소등 캠페인을 진행하는 호텔들에서는 특별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했다. 22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될 소등 행사 참여 인증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지정된 SNS에 게시를 완료한 호텔 이용객에게 추첨을 통해 롯데호텔앤리조트 계열 국내 5성급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증정한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속가능한 여행의 실천을 강조하며 호텔업계 내에서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식품 제조, 베이커리, 외식, 급식 등 전 사업 영역에서 식물성 대안식품을 활용한 저탄소 식생활을 제안하는 '베리위크'(Better Week)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숲과 손잡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규모 숲 조성사업을 확장하고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16일 산림청, 생명숲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국유림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샘·현대리바트·현대퍼퓰러티브·현대디자인·지누스·대원강업 등 현대백화점그룹 9개 계열사의 임직원이 직접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목표 200그루를 식재했다.

롯데백화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롯데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슈퍼 해피 플래닛'을 진행한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는 '롯데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는 다음달 25일 전국 16개 권역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미술대회는 롯데백화점과 환경부, 환경재단이 1979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가자만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롯데백화점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 행사로 자리잡았다.

오리온은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국내외 법인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동참해 각국 실정에 맞는 친환경 활동에 나선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노브랜드 버거, 식물성 패티 선택 "지구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100% 식물성 패티를 활용한 저탄소 메뉴로 '베리 불고기 버거'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 베이커리, 외식, 급식 등 전 사업영역을 통해 식물성 대안식품을 활용한 저탄소 식생활을 제안하는 '베리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출시하는 노브랜드 버거의 '베리 불고기 버거'는 100% 식물성 패티를 사용해 선보이는 저탄소 버거다.

'베리 불고기' 100% 식물성 패티 저탄소 버거 NBB앱 통해 단품 구매시 세트업 혜택도 제공

노브랜드 버거의 대표 가성비 메뉴인 '그릴드 불고기'의 맛과 식감을 신세계푸드가 자체 개발한 식물성 대안육 '베리미트' 패티로 똑같이 구현해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젊은 층이 버거를 즐기며 지구환경, 동물복지, 인류건강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도 단품 3200원, 세트 52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해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신세계푸드는 '베리위크' 캠페인이 진행되는 28일까지 NBB앱을 통해 '베리 불고기 버거'와 '베리 시그니처 버거' 단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감자튀김과 브랜드 콜라를 증정하는 세트업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86-69
 소유주 : 신동민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고인 : 협성설비(주)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

2024.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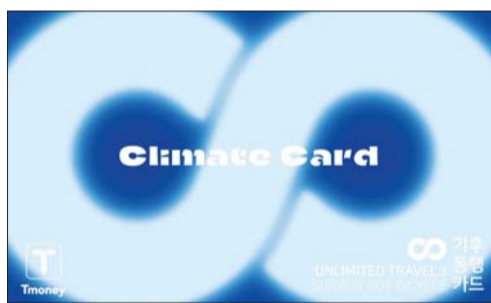
기후동행카드, 신용·체크 충전... 결제편의 높인다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등록 후 충전 내달 31일까지 최대 1만원 추가혜택 제공 27일부터 역사 교통권 발매기서도 지원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기능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카드는 이달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로 전 카드사(신한,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비씨, 농협, 삼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한 뒤 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이달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의 이벤트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도 개선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1회용 교통권 발매기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개인별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 결제(삼성페이)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카드를 충전하면 된다.

시는 올 9월 말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 한 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봄철 이동량이 늘어나는 5월에 앞서 신속하게 결제 수단 확대를 추진해 온 만큼,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KT, AI 활용 통신전력 절감 기술 3가지 선택

AI TEMS 등 서버 전력공급 최적화 솔루션

KT가 지구의 날을 기념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AI(인공지능) 기술 3가지를 개발했다.

KT가 21일 소개한 전력 절감 기술은 'AI TEMS',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 '서버 전력 공급 최적화 솔루션' 등 3가지다.

AI TEMS는 통신 장비들이 관리되는 통신실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모든 통신실에 동일한 온도 기준을 설정하고, 냉방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야만 했다.

AI TEMS를 도입하면 AI가 장비의 특징과 위치별 온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통신실 적정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냉방 시스템을 최적으로 운영해준다. KT는 AI TEMS를 4곳의 통신실에 시범 적용해 냉방 시스템 효율을 24% 개선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는 기지국의 전파 출력을 AI가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지국의 트래픽을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전파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4월부터 일부 5G 기지국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서버 전력 공급 최적화 솔루션은 서버의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각종 서버의 중앙 처리 장치(CPU)의 부하를 자동으로 분석해 최적의 전력을 공급한다.

한편 KT는 전력 사용이 많은 통신 장비를 고효율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와 외기 도입 쿨링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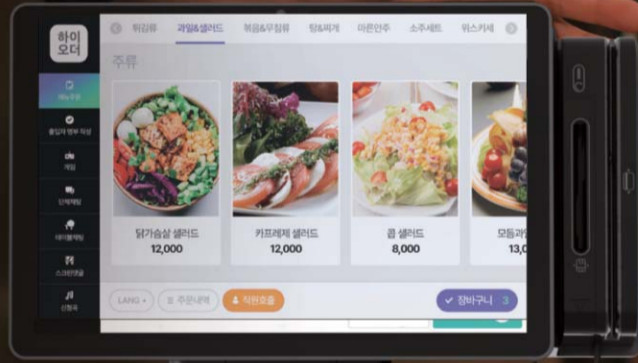
아울러 KT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동반한 에너지 자립형 통신국사도 운영 중이다.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T는 전력 사용 절감을 위한 AI 기술을 네트워크 시스템 운용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기로 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하이오더

- ✓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안정적인 네트워크 · 전국 직영 A/S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상품문의 1588-0114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신중'... 영수회담 이후 결정할 수도

총리 후보, 권영세·주호영·김한길
비서실장 거론 후보, 친윤 '비판'
박영선·양정철 설에 '비선 의혹'
금주 대통령실서 이재명 회동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이후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열흘이 지난 21일 현재,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 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실장은 22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총선이 끝난 지 열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4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넘었음에도 인사 발표는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 야당과 대화를 할 만한 인물을 찾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부르게 인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이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인물을 찾는 셈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오늘) 인사 발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선 총리 후보군으로 는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세·주호영 의

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비서실장 인선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무감각과 대내외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야권으로부터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론된 인물들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거론됐지만 야권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설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험악해지고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영선·양정철 발탁설'에 대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 가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면 OK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홍 시장은 이를 응하겠는가, 민주당원들은 찬성하겠는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 파괴 공작이라고 길길이 날뛰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이후에 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중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통화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만큼, 이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만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논의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전대를 변경 '신경전'

영남당 한계 드러나... '수도권 지도부' 필요

윤상현 "혁신 성격 비대위 돼야"
당원 50%, 여론조사 50% 변경 주장
권영진 "당원 100% 하는 게 맞아"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전당대회의 선거를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 방식을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등 '민심'과 '당심'을 섞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많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대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차기 지도부를 빠르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당선된 이들을 중심으로 윤 권한대행 추대에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영남권 인사인데다 총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윤 권한대행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켜야 하지만, 특검 때문에 현재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면 혁신위나 TF를 발

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과 자성부터 해야 한다. 관리형이나 실무형 비대위가 아닌 혁신 성격의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인 서울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도 이 자리에서 "냉철한 복기가 먼저 돼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총선 참패가 금방 잊힌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며, '수도권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수도권(122석)에서 단 19석 밖에 얻지 못하면서,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윤상현 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당내 인사와 전문가들은 총선 패배 복구를 위한 백서(평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남권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인가. 나는 '영남의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고, 박성민 정치권 설령 민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재섭 당선자도 "영남의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도부만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을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전당대회 물고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 규칙대로 '당원투표 100%'를 적용하면 영남권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에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였지만,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규칙대로 바뀌었다. 그 결과 당권을 잡은 것이 영남권 의원인 김기현 전 대표다.

이에 당내 수도권 인사들은 '당원투표 100%'인 현재의 전당대회 물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더 커질 것이라 주장한다. 일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제하는 편이다. 총선 패배의 책임론이 거세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부 영남권 인사들은 이에 대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영진 당선인(대구 달서병)은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비윤(비윤석열)계이자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예진 기자

野,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쟁 '치열'

국회의장, 추미애·조정식 도전 전망
원내대표엔 박찬대·서영교 등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로 행보를 바꾸는 모양새다.

먼저, 관례상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원내1당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선출해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고득표자가 당선되게끔 해냈다.

국회의장 후보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다. 추 의원은 연고가 없는 경기 하남갑에 도전해 신승을 거두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현 정부와 화끈하게 붙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추 당선인 이외에도 당내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당 사무총장 직을 내려놓으며 국회의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며 "향후 22대 총선의 민의가 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



추미애 당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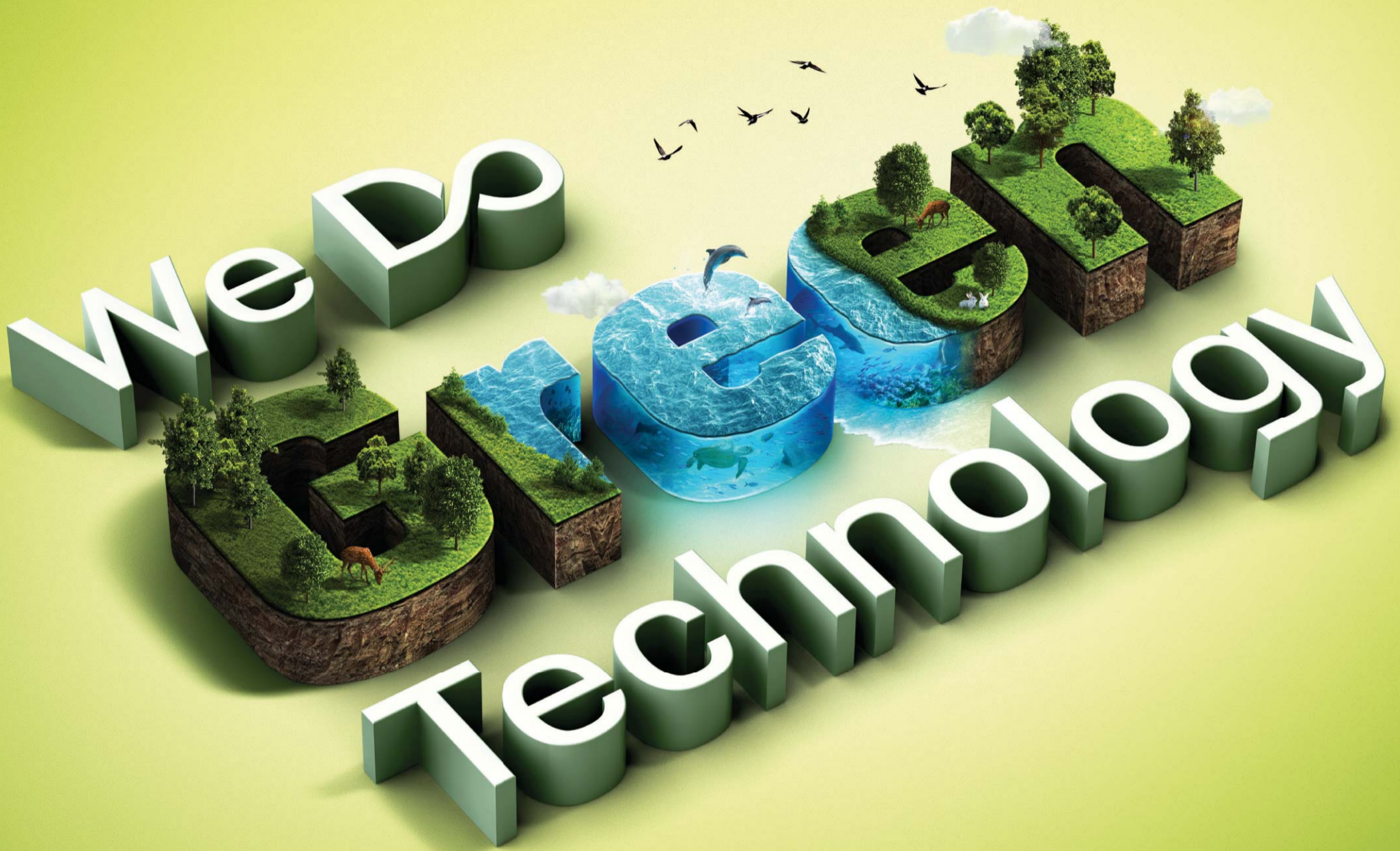
조정식 의원

도록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그리고 무너진 헌법정신과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이외에도 원로급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빈자리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도전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 도전을 선언한 박 최고위원 이외에도 역시 친이재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이끈 김민석 의원, 당 수석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박태홍 기자 pth285@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연 개최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IECQ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완성차업계, 전동화 전략 재정립... 투자 확대 vs 속도 조절

〈현대차·BMW〉

〈테슬라·폭스바겐·포드〉

전기차 수요 둔화... 대응책 마련

현대차그룹 SDV 등 대규모 투자
테슬라 전 세계 인력 10% 감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위기 대응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해 폭스바겐, 포드 등은 인력 구조조정과 전략 변경을 통한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 현대자동차그룹과 BMW 등은 신차 출시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전세계 인력 10% 감원을 선택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 돌파로 조직 슬림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 세계 직원 수가 14만명이라는 점에서 전체 직원의 10%인 1만4000명 가량 감원 대상이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4년 만에 역성장한 38만6810대를 기록했다. 이



현대차 울산 EV전용공장 기공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는 정희선 회장

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의 여파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포드와 폭스바겐 등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애초 계획한 전기차 투자 가운데 120억달러(약 16조 원)의 지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5일 캐나다 오크빌 공장의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전동화 모델 양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존 롤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 2위 판매량을 기록한 폭스바겐은 2026년 독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BMW 등은 대규모 투자와 신차 출시를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68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채용은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한다. 전체 채용 규모의 55%에 달하는 4만 4000명이 전동화, SDV, 탄소중립 실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 등 신사업 분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EV 제품군을 31종으로 늘리고,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해 간다. 기아는 올해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SUV)과 준중형급 세단형 전기차 EV4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전동화 시장이 대중화 시대로 진입하며 일시적 수요 둔화

를 겪고 있지만, 미래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며 "올해 볼륨 모델인 EV3를 신규 출시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 EV 톱 티어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BMW 그룹은 전동화 기술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설비투자(CAPEX)의 경우 독일 뮌헨 공장을 확장하고 MINI 옥스포드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헝가리 데브레첸에 자동차 생산 공장도 건설한다. 중국 선양, 미국 우드러프,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 독일 니더바이에른 현에는 각각 고전압 배터리 조립시설을 구축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전략 변화는 전체 시장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높은 차량 가격과 고금리 등의 요소가 차츰 해결되면서 판매량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차이나플러스 2024' D-1

LG화학, 친환경·고부가 제품 대거 전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 테마
"글로벌 고객의 마음 사로잡을 것"

LG화학이 친환경·고부가 전략제품으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4(Chinaplas 2024)'에 참가해 바이오, 재활용, 씩는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와 자동차·생활 분야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차이나플러스 2024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38만㎡가 넘는 전시 면적을 제공하고 전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400㎡(121평) 부스에 60여 종이 넘는 제품을 전시하고



'차이나플러스 2024' LG화학 부스 조감도

/LG화학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9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LG화학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solutions)'을 테마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친환경 제품은 전체의 40%

이상으로 구성됐다.

LG화학노극래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LG화학의 친환경 고부가 전략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지오센트릭, EAA 등 차세대 화학제품·기술력 뽐낸다

(에틸렌 아크릴산)

기술 세미나 개최 예정

SK지오센트릭이 세계 3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인 차이나플러스(Chinaplas)에 참가해 고부가 화학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4'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행사에서 SK지오센트릭은 에틸렌 아크릴산(EAA)을 비롯해 아이오노머(I/O), 경량화 소재 등 고부가 미래 화학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SK지오센트릭은 차세대 화학제품 전시로 글로벌 고객들을 맞

다. 340㎡ 규모 전시부스는 ▲접착&밀봉 솔루션(Tie&Sealing Solution)·신기술에너지솔루션(New Energy Solution) ▲라이프스타일솔루션(Lifestyle Solution) ▲어드밴스드 솔루션(Advanced Solution) 등 3개 주제로 각기 섹터를 마련했다.

접착&밀봉 솔루션과 신기술에너지솔루션 섹터는 EAA, 아이오노머를 핵심 제품으로 소개한다. EAA는 포장재용으로 주로 쓰이는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성이 높아 글로벌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17년 미국과 스페인의 EAA 공장을 인수했

고, 중국에 3번째 EAA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신기술에너지 솔루션 섹터에서는 물성이 우수해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사용되는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를 선보였다.

SK지오센트릭은 고객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 세미나도 개최한다. 70여개 고객사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SK지오센트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소개한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올해 차이나플러스는 SK지오센트릭의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무인 잠수정·수상정' 만든다

해군 개념설계 사업 수주

있다.

한화오션이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계열사간 시너지가 발휘됐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Navy Sea GHOST)'를 향한 첫 걸음이다.

네이비 시 고스트는 수상·수중·공중 등 전 영역에서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유·무인 전력을 통합 운용해 작전·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군은 현재 '국방혁신4.0'과 연계해 해양 전투력 우위 확보를 위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이번에 개념설계에 들어가는 '정찰용 무인 잠수정'은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작전 지역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함께 기동하는 모함(母艦)의 해상 정찰업무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 '기뢰전 무인 수상정'도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게 될 무인 함정이다. 평시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기뢰 탐색 및 해체(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함정의 안전한 출몰항로를 확보하는 첨병 역할도 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는 결국 군 병력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오션은 무인 무기체계 기술로 흔들림 없는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중진공, 中 炭소중립 인프라 지원 강화

HD한국조선해양·동서발전 MOU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한국조선해양,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중진공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강성진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조선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은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참여기관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협업 사업이다.



지난 18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강성진 중진공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조선 산업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이통3사, 영업익 1조에도 허리띠 쥘다... 설비투자 절감 본격화

5G 가입자 감소·통신비 압박 등에 4분기까지 확대한 마케팅비용 ↓ 신사업 투자 늘리고 AI·B2B 전환

이동통신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주력 분야인 통신 사업 위축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압박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마케팅비와 설비투자비용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3사 합산 영업 이익 추정치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1조2555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 5014억원, KT 5039억원, LG유플러스 2502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전년 동기 대비 1.34%, 3.65%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3.84% 감소했다. KT가 SK텔레콤을 앞지르게 된다.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 1조원을 밑돌다 다시 회복했다. 이들은 2022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1조원을 돌파했지만 4분기 7582억원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그러다 1분기 만에 다시 1조원대를 회복한 것.

다만, 주요 수입원인 통신사업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내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 높은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로 인해 이익 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G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6.9% 증가한 3280만81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 /뉴스시

5G 가입자 증가율 34.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5G 일반 요금제 구간에 월 3만9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와 월 4만5000원·8GB의 '컴팩트플러스'를 추가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5GB를 제공하는 '5G 미니'와 월 5만9000원·24GB의 '5G 베이직+'를 신선했다. KT도 앞서 월 3만7000원·4GB와 월 5만원·21GB, 월 5만8000원·21GB 3종의 요금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수익을 가능할 핵심 지표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1분기 SK텔레콤의 ARPU를 지난해 1분기 대비 1.7% 감소한 2만9600원으로, LG유플러스의 ARPU는 8% 감소한 2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

간 KT의 ARPU는 전년 대비 1.6% 오른 3만4300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통신3사는 영업이익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수익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예상 통신3사 합산 마케팅비는 1조9600억원으로 전 분기(1조967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확대됐던 마케팅비용을 축소할 것이다.

이밖에도 통신3사가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 투자를 확대한 것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탈통신을 선언하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통한 B2B 사업으로 전환을 공표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무선사업부문의 수익 감소 속에서도 B2B는 계속 성장세"라며 "여기에 마케팅비나 설비투자비용(CAPEX)을 줄이면서 이익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갤S24 대여하고 이색사진 체험 하세요”

삼성전자 '갤 스튜디오 포토' 에버랜드서 내달 26일까지 체험 생성형 편집으로 이색 사진 만들어 갤 Z 폴드5·플립5 등 시리즈 전시

삼성전자가 에버랜드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갤ml릭시 S24' 시리즈를 빌려 AI(인공지능) 기능을 자유롭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의 '갤럭시 AI' 기반 카메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 Photo(포토)'를 다음달 26일까지 에버랜드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는 이색적인 사진 체험부터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까지 1020세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테마파크 콘셉트로 마련된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우산, 꽃, 비누방울 등의 소품과 함께 갤럭시 S24로 사진을 촬영하고, '갤럭시 AI'의 '생성형 편집'을 활용해 신비로운 분위기의 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포시즌스 가든'을 포함한 다양한 에버랜드 사진 명소에서는 AI 전문 사진 작가가 갤럭시 S24로 사진을 촬영해준



에버랜드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 Photo' 전경. /삼성전자

다. 이를 생성형 편집을 활용해 이색적인 사진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갤럭시 포토 박스가 설치된 '라이브 나비 체험관'에서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종류의 나비와 꽃을 쉽고 빠르게 검색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대여해 에버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갤럭시 AI 기능을 즐길 수 있는 갤럭시 S24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에버랜드 내 포토 스팟에서 인증 시 삼성월렛으로 모바일 쿠폰도 증명한다.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원(One) UI 6.1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갤럭시 Z 폴드5·플립5' '갤

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탭S9 시리즈' 등을 전시한다.

삼성월렛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삼성월렛에 에버랜드 티켓, 멤버십, 모바일 신분증 등을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낵 교환권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스튜디오 포토"는 봄 시즌을 맞아 에버랜드를 찾은 1020세대 고객들이 '갤럭시 AI'를 더욱 자유롭게 흥미롭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에버랜드 전역에 마련된 다양한 포토 스팟에서 갤럭시 AI 기반의 카메라로 나만의 이색적인 사진 작품을 남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GU+, 소상공인에 SOHO 솔루션 지원

DX 컨설턴트로 차별적 고객 경험 제공

LG유플러스가 자사 SOHO(소규모 자영업) 솔루션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DX(디지털 전환) 컨설턴트를 육성해 차별적 고객 경험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김유진아카데미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유진아카데미는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자영업계 최초의 매니지먼트 그룹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자사 SOHO 솔루션을 도맡아 판매하는 파트너사의 임직원들을 매장 운영 전문 DX 컨설턴트로 육성하기로 했다. 김유진아카데미는 매장운영 노하우가 담긴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김유진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DX 컨설턴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및



LG유플러스 안형균 기업영업2그룹장(오른쪽)과 (좌)김유진 아카데미 김유진 대표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중형 SOHO 솔루션을 추천해 차별화된 DX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DX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김유진 유진아카데미 대표는 1994년부터 음식 전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MBC 프로덕션 예능국 PD였다. 2016년 자영업 전략 사관학교 김유진 아카데미를 오픈한 이후 누적 3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강의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메타, LLM '라마3' 오픈소스 공개

라마2 대비 코드량 4배 더 많아

메타가 19일(현지시각)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3(Llama 3)'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3는 사전훈련과 미세조정을 마친 80억 개(8B·비트)와 700억 개(70B) 매개변수 모델 두 가지로 공개됐다. 두 모델은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MMLU)'를 포함한 다양한 업계 표준 벤치마크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으며 추론과 코드 생성, 지시 수행을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

라마3의 성능 향상은 모델의 사전 훈련과 사후 훈련 과정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사전 훈련을 위해 데이

터셋의 양을 늘리고, 필터링 과정을 거쳐 고품질 데이터만을 선별했다. 라마3는 라마2 대비 7배 많은 15조 이상의 토큰으로 훈련돼 라마2 대비 7배 이상 많으며 코드량은 4배 더 많다.

오픈소스인 라마3 모델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지시 미세조정된 모델은 전문가와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한 레드팀 훈련을 통해 부적절한 답변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한 '라마 가드2(Llama Guard 2)', '코드 실드(CodeShield)', '사이버 보안 평가 기준2(CyberSec Eval 2)'와 같은 안전 장치와 더불어 새로운 안전 도구들도 도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한국반도체연구조합, SC24 참가 기업 모집

올해 11월 18일~21일까지 개최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5월 3일까지 오는 11월 미국 이틀란타에서 열리는 SC24(SuperComputing24) 참가 기업 신청을 받는다.

SC24는 1988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제 규모의 슈퍼컴퓨터 박람회다. 메인 행사인 기술 프로그램 참여자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월드콘그레스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열린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등 345개 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을 열고 여기에 참여할 기업을 신청 받는다.

국내 시스템반도체/AI 반도체 관련 기업 6곳을 선발하며 6개사 이상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참가비용은 업체당 3500만원 내외로 조합은 부스면적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5월 3일 금요일 6시까지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기업 확정은 5월 중, 세부 준비사항은 6월 전 각각 안내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국내증시, 변동성 지속 전망에 美 물가지표·기업 실적 '주목'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조짐
지난주 코스피, 2591.86... 3.35% ↓
지난달 美 PCE, 예상치 상회 시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도

미국 금리 인상 및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5~19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35% 내린 2591.86에 마감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2.15%(18.56포인트) 내린 841.9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 데다 이란·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점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급등하는 등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그간 국내 증시에서 역대급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촉발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4410억원과 코스피 200 선물 2조9395억원어

치를 순매도했다. 기관도 프로그램 매매를 포함해 1조1195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18일 하루를 제외하고 4거래일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ASML, TSMC의 실적 쇼크까지 가세하면서 이달 코스피는 7%나 떨어졌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 증시가 1~4%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의 낙폭이 크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중동발 위기, 고환율,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여러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내 증시의 조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당분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한 단계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국제유가를 자극하고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이하 한국 시간 기준)엔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

E)가 발표될 예정이다. 미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때 PCE를 중요 지표로 참고한다. 3월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PCE 가격지수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지난주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매파적 발언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3월 PCE 반등 폭이 제한적이면 3월 CPI의 충격은 진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와 달러화가 안정되면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주에는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SK하이닉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변수는 기업 실적"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지난달 CP·회사채 발행 줄고, 주식은 늘고

금감원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지난달 기업 직접금융 조달 방식 중 주식이 전월 대비 발행액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이 마무리되며 그 규모가 7조6185억원 가량 줄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식 및 회사채 공모 발행액은 총 20조5241원(주식 1조9053억원, 회사채 18조6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조9560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달 기업공개(IPO)는 5건, 1503억원 규모다. 전월 10건, 1919억원과 비교해 416억원(21.7%) 감소했다. 이른바 '대어급' IPO가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이 작용했다.

주식은 이러한 IPO 규모 감소에도 LG디스플레이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로 전월과 비교해 발행규모가 1조6625억원(68.7%) 증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로 1조2925억원을 조달한다고 지난달 4일 공시한 바 있으며, 대한전선은 미국 등 현지 공장 확보와 시설 투자

를 위해 4625억원을 조달했다.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 마무리되고, 공사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7조6185억원(29.0%) 줄었다.

일반회사채는 47건, 4조6420억원 규모다. 전월 82건, 8조8590억원과 비교해 4조2170억원(47.6%) 감소했다.

금융채는 전월 대비 22.1%(3조5067억원) 적은 12조3591억원이 발행됐다.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채는 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77.4%(1조71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전월의 영구채 발행 증세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은행채, 기타금융채가 각각 11.6%, 13.9%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CP 및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90조4498억원으로 전월(96조8867억원) 대비 6조4369억원(6.6%) 감소했다.

CP는 총 27조2966억원으로 전월(34조5242억원)에 비해 7조2276억원(20.9%) 줄었고, 단기사채는 총 63조1532억원으로 전월(62조3625억원) 대비 7907억원 증가(1.3%) 소폭 늘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디앤디파마텍, 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

공모가 3.3만원 확정... 상단 초과

GLP-1 계열 경구용 비만·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디앤디파마텍이 내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2일~18일 5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밴드(2만2000원~2만6000원) 상단을 초과한 3만3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이번 수요예측은 총 2181개 기관이 참여하며 최종 84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금액은 약 363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3442억원 규모가 될 예

정이다. 전체 참여 물량의 99.6%(가격 미제시 0.6% 포함)가 밴드 상단인 2만6000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으며 이중 약 95.5%(가격 미제시 0.6% 포함)의 기관이 확정 공모가(3만3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GLP-1 계열 경구용 비만·MASH 신약 파이프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GLP-1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22일~23일 양일간 청약에 거쳐 5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올해 실적 '상저하고' 전망... 목표가 상향

metro 관심종목
셀트리온

'집펜트라'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처방 매출, 올해 3분기 실적부터 확인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신약 '집펜트라'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주목되면서,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들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9.57% 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합병 후

발생한 관련 관련 기업인수가격배분(PA)이 분기별 700억원 씩 반영돼 영업이익이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PP A 상각비 규모가 분기별 70억원으로 감소하고 매출 원가율도 상반기 대비 낮아지면서 큰 폭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며 올해 실적의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가 기존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핵심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품목인 '집펜트라'는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펜트라는 이미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유효성과 편의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아 지난월부터 시장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특허를 등록하면서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도 일부

방어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허헤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집펜트라라 미국 시장 안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집펜트라 처방 매출은 올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휴마라의 PBM(처방급여관리회사) 계약 종료가 순차적으로 돌입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22만원)과 NH투자증권(25만원)도 목표가를 상향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25만원을 유지했다.

최근 발표한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결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추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750억원 규모의 자사주 43만6047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만 총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셀트리온의 주가는 3.57% 가량 급등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중엔시에스,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

희망 공모가 범위, 2만~2만3500원

에너지 저장장치 전문기업 한중엔시에스가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엔시에스가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160만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원에서 2만3500원, 총 공모금액은 320억원에서 376억원이다. 다음달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뒤, 6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1995년에 설립된 한중엔시에스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및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창업 초기 자동차부품 사업을 영위했지만,

친환경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지난 2021년에 에너지 저장장치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중엔시에스는 ESS·EV R&D 센터를 구축하고, BESS Battery Module, 전력변환기, 이동형 Micro ESS(다기능 축발전기) 등 이차전지 분야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ESS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고성능·고효율 수냉식 냉각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과 냉각수공급부품(Mainfold) 등의 개발 및 양산을 본격화했다.

회사측은 현재 자체 수냉식 ESS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제품 매출이 본격화되면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소진공 본사, 대전 內 이전에... 市 “의논 없었다” 몽니

(중구·유성구)

소진공 “빗물 새는 등 건물 낙후 직원 투표서 80% 이상 이전 찬성” “세종 중기부와 거리 절반 단축 연간 보증금·임차비도 확 줄어”

대전시 “쉬쉬하고 논의도 안해 총선 이후 갑작스런 이전에 당황”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뉴스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사를 같은 대전시 내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대전광역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 워낙 낡고 시설이 노후화돼 열악한 근무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을 놓고 소진공을 마치 시 산하기관인양 대하면서다.

마침 소진공은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호 이사장이 맡고 있다.

21일 대전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대전시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은 지난 1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진공이 이전에 대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시와 논의했으면 좋았

족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대전지역을 지원하는 대전충청 지역본부와 대전남부센터는 기존과 같이 중구에 남게 된다.

그러면서 소진공은 “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가 ‘청사 이전’이었다”면서 “사육을 대전시 안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직원들의 처우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소진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물 이전에 대해 내부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사육 이전을 찬성했다.

현재 소진공이 있는 건물은 장마철마다 물난리를 겪는다. 한 소진공 직원은 장마철에 건물 내부로 쏟아지는 빗물이 계단으로 넘치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후화돼 수시로 막히는 화장실도 골칫거리였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크게 늘어나며 구성원 숫자도 많아져 사무실도 협소하다.

6월에 해당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소진공 임직원들의 업무면적은 5.2평에서

6.2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주무부처인 중기부(세종시)와의 거리는 기존의 33km에서 14km로 가까워지고 출장시간도 왕복 12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모두 세종시에 있다. 이에 따라 소진공 역시 중장기적으로 아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같은 지역내 이전을 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대전시의 경우 향후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소진공을 빼가지 않기 위해 총력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진공은 이번 이전을 통해 경비가 줄어들어 이를 직원 복지 향상에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보증금이 연간 10억2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연간 임차관리비도 17억5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무료주차도 54면에서 70면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회의실, 직원 휴게시설 등 업무 및 편의시설도 확충이 가능해 직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직원 업무 만족

도와 부서 간 소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이 가장 낮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소진공 평균 연봉은 4950만8000원이다. 이는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9271만4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사육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복지증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인 소진공의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소진공 직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경비가 줄어보겠다고 같은 대전시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대전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19개 법원과 ‘기술분쟁조정’ 협약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 속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기술분쟁중재위)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끝냈다.

기술분쟁중재위는 지난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후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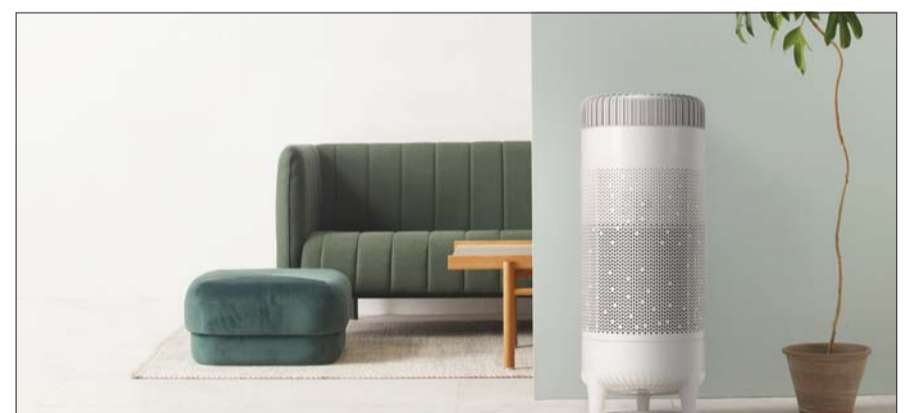
기술분쟁중재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기술분쟁중재위에 배정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뉴히어로2로 봄철 황사 걱정 덜어요”

청호나이스 ‘뉴히어로2’ 출시
활성탄 등 유해가스 정화능력 향상

청호나이스가 출시한 공기청정기 ‘뉴히어로2’ (사진)가 듀얼 플러스 필터를 장착,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로부터 가족 건강을 톡톡히 지키고 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7분의 1정도인 10μm(10μm는 0.001cm)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 또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μm 이하로 우리가 숨을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미세먼지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황산염 등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각종 염증과 천식 등은 물론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악화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봄철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3~5월에 먼지 농도가 특히 높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청호나이스가 ‘뉴히어로2’에 적용한

듀얼 플러스 필터는 여재 사이에 고성능 입상 활성탄을 포함해 기존 자사 필터 대비 1.3배 유해가스 정화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집진과 탈취 필터가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필터로 교체와 관리도 쉽다.

특히, ‘뉴히어로2’는 부드러운 곡선라인과 고급스러운 오프 화이트 색상이며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공기역학 설계와 360° 전방향에서 흡입이 가능한 원통형 구조로, 회전무빙으로 세 방향(상·좌·우)으로 강력하고 빠른 청정바람을 생성한다.

‘뉴히어로2’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바닥에서 약 10cm 띄워져 있는 하부흡입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닥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공간 케어와 함께 반려동물의 털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자동(AUTO) 모드를 선택하면 레이저 먼지·가스 센서가 극초미세먼지(1.0μm 이하)까지 감지한 후 오염도에 따라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의 경우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된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뉴히어로2’ 공기청정기는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안심하고 가족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맞춤형 공간케어 상품 선보여

HDC랩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코웨이 박준현 법인사업실장(왼쪽)이 HDC랩스 한상현 리얼티본부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가 HDC랩스와 손잡고 맞춤형 공간 케어 상품을 선보인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HDC랩스는 건물관리 솔루션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AIoT 기업으로 공간 케어 브랜드인 베스틴케어를 중심으로 공간방역·살균, 위생 장비 렌탈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휴 상품 개발로 영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코웨이 환경가전 제품과 HDC랩스의 베스틴케어 방제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간 케어 상품을 개발해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Office care(가

침)’, ‘Bath care(가침)’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상품을 패키지와 하고 맞춤형 공간 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웨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피스 빌딩 및 건물 운영 플랫폼 시장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B2B(기업간 거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리바트 소파 신제품 2종 출시

현대리바트가 리클라이너 소파 ‘캐슈넛’ 과 모듈형 소파 ‘그레블’ 등 소파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21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캐슈넛은 등받이부터 팔걸이, 좌방석 등이 둥근 형태의 ‘라운드 애브리웨어’ 디자인을 적용한 리클라이너 소파다. 밀도가 높으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의 부클레 원단을 사용해 편안한 착석감이 특징이며, 생활 발수 기능을 갖춰 관리가 쉽다.

리클라이너의 핵심 부품인 리클라이너 모터와 스위치 등 내부 리클라이닝 하드웨어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은 독일 OKIN의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리클라이너 기능을 작동할 때 별도의 여유공간이 필요없는 ‘제로월’ 기능을 적용해 소파를 벽에 밀착시켜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다. /김승호 기자

‘농촌 소멸’ 막을 10년계획 밑그림… 재생지역에 300억 투입

농식품부, 재구조화·재생 기본방침
농촌재생 대상지 기존 대비 200%↑
신규창업, 농촌지역 비중 25% 확대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 대응 차 재생화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농촌재생 지원 대상지 수를 2033년까지 200곳으로, 기존(68곳) 대비 20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또 스마트 농업 등을 적극 도입해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을 기존 20%에서 향후 10년 내 2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 중장기 정책방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밝힌 바 있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일터·쉼터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우선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농촌 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



전북도 주관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칠보면 거점마을로 되살아날 예정인 남전마을의 전경. /뉴스

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으로 나뉜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

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 공간 정비 및 재생 지원대상을 지난해 기준 68개소에서 오는 2033년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기존 마을의 경우, 농촌 인구 공동화 문제에 대응해 장래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에 대

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한다. 신규주택은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 유도한다.

아울러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의 확산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먼 거리 및 낮은 인구밀도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기술 접목 모델 개발·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는 지속적 박차를 가한다.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창업 중 농촌지역 비중을 2033년까지 25%로, 기존(2021년 기준) 대비 5%포인트(p)가량 늘릴 계획이다. 농업기술 혁신에 따른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함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유·무형 자원(생태·문화·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관농업지구 및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해 지역의 경관자원을 집약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약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중소·중견 수출기업 60곳 대상
이달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

환경부가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정부산하기관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EU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EU에 수출되

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 사업은 총 60개 사를 지원하며, EU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양식 작성 등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배출량을 보고 받고 있다. 향후 2~3년 후부터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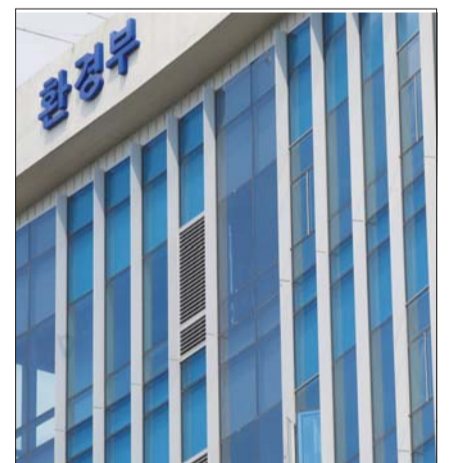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모집 후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유럽연합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 발간하고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왔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유럽연합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을 비롯해 ‘이미 지급한(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스

표 시점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美, 한식문화 확산·K푸드 수출 확대 등 협력 논의

농식품장관,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최근 농식품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식문화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농산물 교역 및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라고 진단했다. 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또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 장관은 또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지역 탄소중립 활성화 나선다

서울시등 4개 지자체와 기본계획공유

환경부가 오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중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발표에 나선다.

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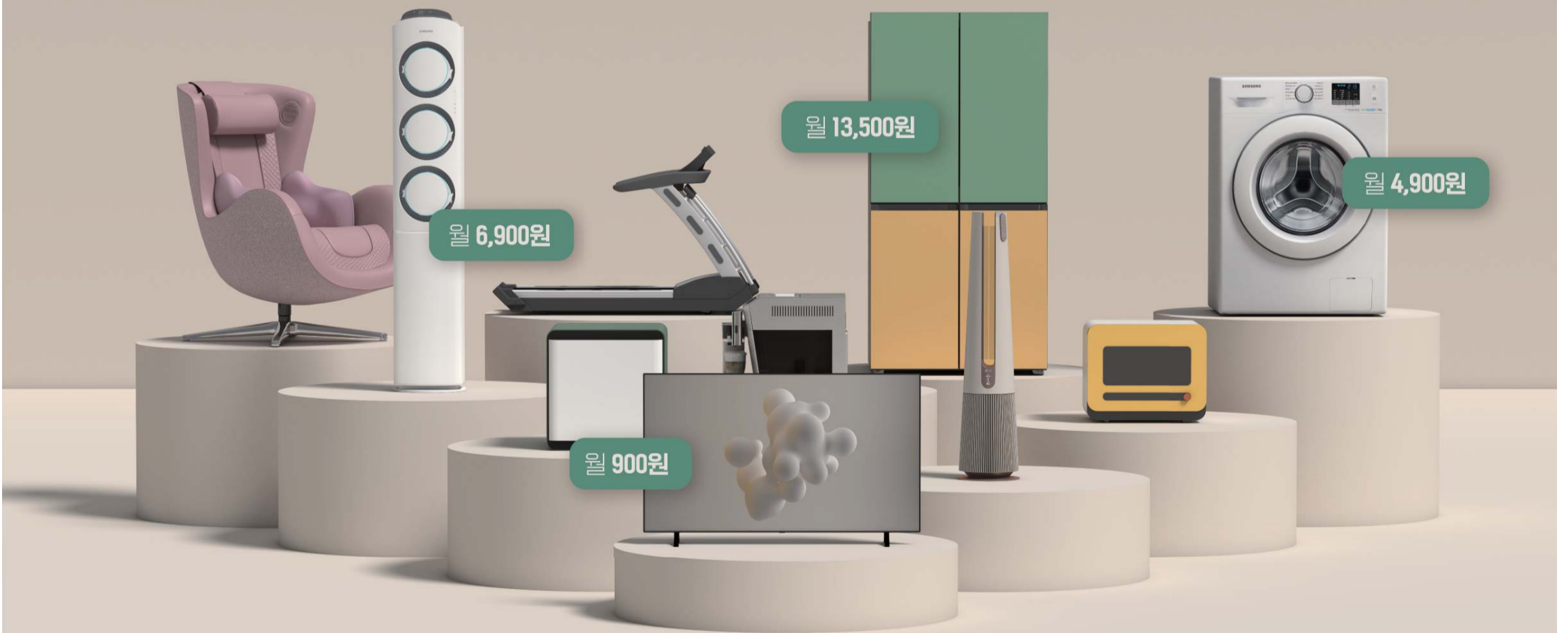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상담문의 1855 - 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경남도, 노후·위험시설 1800개소 집중 안전점검 실시

오는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 키즈카페, 워터파크도 전수점검 특별교부세 신청 등 적극 후속조치

경남도는 도내 노후·위험시설 1800개소를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지난 2015년 시작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활동이다.

도내 주요 점검 대상은 취약시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도민 관심 분야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 1800여 개소와 주민신청제로 선정된 시설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가 전국 기준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노후 위험시설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경남도

2020년 181건에서 2022년 263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키즈카페, 워터파크를 포함한 물놀이 시설도 전수 점검한다.

경남에서는 규모 1000㎡ 이상 실내 놀이제공 영업소 6개소와 워터파크 포함 물놀이 유원시설 2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및 안전취약 시설인 산사태 위험지역, 교량, 건설

공사장, 농어촌 민박·펜션과 출렁다리·집라인 등 신종 레저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도는 내실 있고 신뢰도 높은 점검을 위해 시설물 점검반 편성 시 토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키고,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철근탐사기,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점검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과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합동 표본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보수·보강,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의뢰 등 안전조치하고,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가정,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안전의식, 안전전문가를 통한 신고 등을 홍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담양군 신속집행평가 '최우수' 기관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하반기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5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전라남도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6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25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군은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5270만 원, 3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문경시 '주출산 케이블카' 기공식

문경시는 지난 20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주출산 케이블카'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 임이자 국회의원 및 지역의 시·도의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출산 케이블카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제4주차장 인근의 하부승강장에서 주출산 관봉 인근 해발 974.5m의 상부승강장까지 삭도길이 1.86km,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초속 5m로 편도 7분의 속도로 운행하며,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다. /문경(경북)=장영우 기자 ycyu57@

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전남·광주·전북, 사업비 426억 확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목표 2028년까지 지능형농업 실증 고도화

호남권 광역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융합형 농업 생태계 구축에 손을 잡았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광주, 전북과 함께 선정돼 총사업비 426억 원(국비 284억·지방비 142억)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AI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초광역 협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2028년까지 5년간 광주시, 전북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함께 지능형농업 실증과 고도화, 지능형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기계스마트화(원격자율작업), 최

적 생육과 환경 관리(노지 정밀농업), 지능형 농업 데이터 수집과 제어(관계네트워크)를 통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고도화가 기대된다.

추진 사업은 ▲AI 자율작업 관제 체계 실증 ▲AI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기술고도화와 사업화 지원 등이다.

특히 나주에 조성 중인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노지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노지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개발과 실증 ▲AI 융합 농업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솔루션의 기술고도화와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농산업과 AI융합을 통한 무인화, 지능화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농산업 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광역시 4월 19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와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IB 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교육청, 경북대, 대구교대와 '맞손'

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와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

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다.

현재 전국 333개의 IB준비·운영학교 중 대구광역시에는 98개의 학교가 IB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이 중 24개 학교가 IB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IB교육을 선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최근 IB학교의 우수한 대학 입시 결과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목포유달유원지, 깨끗·쾌적하게 가꾼다

환경정화 활동·캠페인 전개 100여명이 함께했다

목포스카이워크 확장과 대반동 연안정비 등이 진행된 목포유달유원지 일대가 목포의 관광명소가 거듭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 19일, 행락철 관광객 맞이와 함께 새롭게 단장한 유달유원지를 알리고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유달유원지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행사는 유달동주민자치위원회(회장 송주용)를 비롯한 유달동 주민과 원도심 상인회, (사)목포시관광협의회(회장 조길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유달유원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관광 명소가 가꾸어 나가고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친절·안전·정결·질서·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유달유원지 내 목포스카이워크는 2년여의 디자인개선 및 확장공사 끝에 지난 3월 목포시민과 관광객에 개방됐으며, 스카이워크 아래 모래사장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연안정비사업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창원시, '하노버 산업박람회' 공동관 운영

혁신기업 4개사와 참가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이끌 혁신 기업 4개사와 함께 현지 시각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독일에서 개최되는 'HANNOVER MESSE 2024'에 참가한다.

'하노버산업박람회'는 인터스트리 4.0의 요람이자 7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종합산업기술 박람회다.

올해는 지멘스, 리탈, SAP 등 63개국 약 4000여 개사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며 인터스트리 4.0과 제조업-X, 산업 에너지, 제조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탄소 중립, 수소 연료 전지 등의 최신 산업 기술을 선보인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연구기술 ▲공업부품 및 기술 ▲산업 자동화 및 동력전달제어기술 ▲에너지 솔루션 ▲산업디지털융합기술의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견인할 디지털전환(DX)분야 혁신 기업을 선정해 하노버 산업박람회 창원특례시 공동관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오알에스코리아 ▲메타뷰 ▲제이엔이웍스 ▲이플로우 4개사이다. 이번 창원특례시 공동관은 11관 B35 구역에 위치하며 참가 기업들은 창원특례시 공동관을 통해 신제품 홍보 및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한국마사회 소니와 스포츠사진 촬영세미나

한국마사회는 오는 28일 랫트린파크 부산경남에서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니코리아와 함께하는 스포츠 사진 촬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촬영 세미나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스포츠 사진'을 주제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진행된다.

소니코리아 공식 아카데미 강사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사진작가가 촬영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문가 영입하고 신규매장 열고... '와인 사업' 공들인다

신세계L&B

로버트 몬다비 신규캠페인 진행
점포 리뉴얼·프리미엄 강화 나서

롯데칠성음료

세계최대 'E&J 갤로'와 업무협약
오비노미오 매장 오픈 총 5곳 운영



2024 청룡 에디션 패키지. /신세계L&B



오비노미오 교대점. /롯데칠성음료

팬데믹 기간 급성장한 와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신세계L&B와 롯데칠성음료가 관련 사업을 강화,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와인 수입량은 2019년 4만3000t, 2020년 5만4000t, 2021년 7만7000t에서 2022년 7만1000t으로 소폭 줄다가 지난해 5만6000t으로 대폭 감소했다.

와인 수입액으로 보면 2019년 2억 6000만 달러에서 2022년 5억8128만 달러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4억 달러를 기록하며 17% 가량 하락했다.

와인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주점과 식당 등에 영업제한이 적용되면서 홈술 문화가 자리잡은 것이 배경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주종이 다

변화하면서 2022년부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L&B는 와인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신세계L&B는 '나파밸리의 황제' 로버트 몬다비를 비롯해 코노수르, 프레스코발디 등 주력 와인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와인앤모어'를 주류전문소매점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주요 와인 브랜드 마케팅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대표 브랜드인 로버트 몬다비 신규 캠페인을 30일까지 운영한다.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매장 내에서 로버트 몬다비 브랜

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브랜드 스토리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 코노수르 등 신세계L&B가 수입하는 주요 브랜드의 오퍼 및 와인 메이커 방한도 추진해 다양한 마케팅 협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와인앤모어의 경우, 주류전문 소매점에서 신세계L&B를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특색 있는 콘셉트로의 점포 리뉴얼과 소비자 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세계L&B는 브랜드 큐레이션팀을 신설하고 외부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 브랜드 조직도 재정비

했다. 업계 1위의 와인 포트폴리오와 신세계L&B만의 큐레이션 노하우를 더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고, 신세계백화점 등 계열사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와인 카테고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세계L&B 관계자는 "엔데믹으로 인해 와인 수입시장이 축소되고 K-위스키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일부 영향을 받았지만, 와인 및 위스키 수입과 유통, 와인앤모어 운영 등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업에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국내 1위 와인 수입사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세계L&B는 앞서 K-위스키 사업(한국형 위스키 종류 사업)을 잠정 중

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업인 와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내 위스키 생산 사업 외에 기존 위스키 유통·판매는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도 와인 사업 부문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와이너리 기업 'E&J 갤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와인을 시음, 구매할 수 있는 복합공간 '오비노미오(O VINOMIO)' 신규 매장을 열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에 와인 복합공간 '오비노미오' 교대점 매장을 개장함으로써 신원상점·광명점·금정점·청담점 등 기존 4개 매장에 한 곳을 더했다. 와이너리 인수도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동안 와인이 유행을 탔다. 그러면서 와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소비자들의 주류 취향이 다양해졌고, 와인을 더이상 사치품으로 인식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와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프리미엄 와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며 "업계의 와인 사업 투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와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우유푸딩 등 홍콩 디저트 3종 맛보세요”

이마트24-홍콩밀크컴퍼니 맞손
30일까지 농협카드 구매시 30% ↓



이마트24가 판매하는 홍콩밀크컴퍼니 협업 디저트 상품. /이마트24

이마트24가 글로벌서울의 디저트 카페 '홍콩밀크컴퍼니', 홍콩 콘셉트 스낵 스튜디오 '화류관'과 손잡고 '도심 속 홍콩'을 선사한다.

편의점 이마트24는 글로벌서울의 홍콩 스타일 디저트 카페로 유명한 홍콩 밀크컴퍼니와 협업해 차별화 디저트 상품 3종을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업 상품은 '우유푸딩', '에그타르트', '얼그레이 크림롤' 등 3종으로, 홍콩밀크컴퍼니에서 판매하는 우유푸딩, 에그타르트, 밀크티 등 대표 메뉴를 벤치마킹 해 편의점 상품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마트24가 판매하는 우유푸딩(2400원)은 홍콩밀크컴퍼니의 대표 메

뉴인 수제 우유푸딩을 콘셉트로 해 국내산 원유를 40% 함유한 진한 우유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바삭한 타르트 파이에 부드럽고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을 넣은 '에그타르트(2200원)'와 얼그레이 향이 느껴지는 시트지에 부드럽고 진한 밀크티 풍미가 가득한 크림을 넣은 '얼그레이 크림롤(3800원)'도 판매한다.

이마트24는 이번 협업 상품 판매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NH농협카드로 해당디저트 상품 3종을 구매 시 30% 할

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해당 상품을 구입하면서 이마트24 모바일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상품 1개당 스탬프 1개가 적립되며, 스탬프 2개를 적립하면 경품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홍콩밀크컴퍼니와의 협업 디저트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홍콩의 맛을 선보이고, 홍콩 특유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미니팝업부스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창신동에 위치한 홍콩밀크컴퍼니 매장 입구에 설치된 미니팝업부스에서 고객들은 빈티지 스낵 스튜디오 '화류관'에서 촬영한 콜라보 상품 화보가 담긴 엽서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이 엽서를 이마트24 매장에 가져가면 홍콩밀크컴퍼니 협업 디저트(3종)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파리바게뜨, '파리 생제르맹' 광고 화제

프랑스 축구구단과 '렛츠 파리' 광고
찰떡 샌크림빵 등 신제품 5종 소개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문 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한 '렛츠 파리(Let's Paris)' 광고 영상이 화제다.

'렛츠 파리' 영상은 '파리 생제르맹 대표선수들이 선택한 파리바게뜨 대표 제품들'이라는 주제로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들이 등장해 파리바게뜨 제품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맛있게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파리 생제르맹'의 홈 경기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의 락커룸에서 선수들이 파리바게뜨 빵들을 맛있게 즐기는 장면들로 시작된다. 선수들의 '떡빵(떡방+빵)'이 펼쳐지는 한 쪽에서 생일을 맞은 팀의 막내 에머리를 뒤통에 발

견한 이강인과 아센시요가 축하해 주는 반전을 통해 에머리의 생일조차 있을 정도로 빵이 맛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광고 촬영이 실제 에머리의 생일에 진행돼 선수들이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후문이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百貨 '신백선물관' 1주년 할인행사

신세계백화점이 온라인 선물하기 플랫폼인 '신백선물관' 오픈 1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대대적인 행사를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4월 기존 SSG닷컴 선물하기 서비스 중 백화점 상품만 모은 특별 페이지 '신백선물관'을 열었다. 신백선물관은 1주년을 맞아 고객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네 가지 상황별 선물을 제안한다. 먼저 '백화점의 품

격'을 담은 명품과 뷰티 아이템을 추천하고 '나를 위한 선물'로 패션과 가전·생활 아이템을 제안한다.

'미리 준비하는 가정의 달' 테마로는 유아동 상품과 식품 카테고리의 상품을 소개한다.

지난 1년간 꾸준히 판매된 '스테디셀러' 키워드로 스포츠·아웃도어·슈즈·잡화 상품도 추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이탈리아 뷰티 브랜드 '산타마리

야노벨라'의 블루밍 기프트 세트 ▲프리미엄 사무용 가구 브랜드 '허먼 밀러'의 뉴 에어론 체어 ▲'코닥'의 미니샷콧 3 레트로 휴대용 포토프린터 카메라 등이 있다.

이 밖에 미국 명품 브랜드 '코치'는 베스트 상품을 20% 할인하며, 여성복 브랜드 '라인'과 '케네스레이디'는 인기 이월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이고 쿠폰 혜택도 제공하며 남성 럭셔리 브랜드 '휴고 보스'에서는 골프 아이템을 구매할 시 티셔츠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SSG닷컴 '롤루레몬' 브랜드관 본격 오픈

요가·러닝·골프 라인 등 확대

SSG(씨)닷컴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롤루레몬의 브랜드관을 22일 본격 오픈하고 액티브웨어 시장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21일 밝혔다.

SSG닷컴과 롤루레몬의 단독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존 롤루레몬 공식스토어를 브랜드관으로 영역을 확대해 공개한다. 브랜드관은 공식스토어의 상위 개념으로 일종의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에 해당한다.

양사는 브랜드관 오픈을 통해 요가, 러닝, 골프 라인 등 스타디셀러 물량과 온라인 단독 상품을 넓혀 나가며 배송과 마케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2017년 오픈한 롤루레몬 공식스토어는 SSG닷컴 스포츠카테고리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매출은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신장했다. 지난해 8월에는 롤루레몬의 국내 첫 라이브방송을 SSG닷컴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최빛나 기자

“친환경 제품 구매할래요”... 제약업계, 소비자 트렌드 집중

고려은단
오메가3 전 품목, 식물성원료 변경
어업활동으로부터 해양생물 보호

한미사이언스
완전두유 브랜드 경쟁력 입증

콜마비엔에이치
세종1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건강기능식품 원료 부산물 자원화



식물성 퓨어 알티지 오메가3. /고려은단



콜마비엔에이치 세종1공장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콜마비엔에이치

제약 업체들이 자연 원료를 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포장하는 등 친환경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은단은 최근 자사의 오메가3 전 품목을 동물성 원료에서 식물성 원료로 변경했다. 특히 고려은단 ‘식물성 퓨어 알티지 오메가3’는 외부와 차단한 첨단 시설을 통해 무균 배양한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활용했다.

식물성 오메가3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중금속과 해양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고려은단 측의 설명이다.

고려은단에 따르면 기존 동물성 오메

가3는 해양에서 포획한 어류에서 추출한다. 이와 관련 동물성 오메가3 원료인 어유(魚油)를 얻기 위해 포획하는 어류의 규모는 매년 상업적 어업으로 잡힌 전체 어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은단은 이러한 과도한 어업 활동으로부터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어류 대신 미세조류 등에서 얻은 식물성 원료를 응용한 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두유 음료 식품 ‘완전두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완전두유의 국산콩 설당무첨가, 완전두유 흑임자, 완전두유 검은콩 칼슘 등 3종은 올해 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4 ITI 국제식품료품평회’에서 우수 미각상을 받았다.

한미사이언스는 ‘완전두유’ 브랜드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해 왔다. 특히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전두유 특허공법은 제조공정에서 어떠한 가공 효소도 투입하지 않고 콩의 영양성분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국제식품료품평회에서도 콩 고유의 단백질을 구현한 영양가와 원액두유 본연의 맛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친환경 설비를 강화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3년 말 세종1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자체 설치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판넬에서 생성된 재생에너지로 연간 전기 사용량의 10%를 대체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기술을 선보여 왔다.

이에 따라 콜마비엔에이치는 업계 최초로 탄소저감, 에너지저감 등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한 기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인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후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부여하는 ‘녹색기술제품’ 인증도 받았다.

그 결과, 콜마비엔에이치는 녹색기술이 적용된 녹색기술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녹색전문기업’ 타이틀을 업계 최초로 차지하게 됐다.

이밖에 콜마비엔에이치는 ▲기술 개

발 및 생산설비 변경을 통한 폐기물 절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폐기물 제품화 ▲세종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90% 이상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콜마비엔에이치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전환 확대, 자원순환 이용률 증대 등 중장기 계획을 펼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30 젊은 소비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개인 건강 관리와 함께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며 “제약 업계나 건기식 업계들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환경 보호에 계속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20대~6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7%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5.3%는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워홈, 지난해 매출 1.9兆 ‘역대 최대’

영업익 943억... 전년비 76% ↑
식음료부문서 1.1兆... 실적 견인
‘글로벌 사업확대 전략’ 통해

글로벌 푸드케어&케이터링 기업 아워홈이 지난해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1일 아워홈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1조983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4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무려 76%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로나 등 경영악화 요인으로 창사 첫 적자를 낸지 3년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음료부문(단체급식, 외식) 매출이 약 1조117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해당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구지는 부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핵심 과제로 삼았던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이 빛을 발했다. 2023년 아워홈 글로벌 사업 실적은 전년 대비 13%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주재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콘티넨탈 사내식당 수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곳곳에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다.

아워홈 글로벌 사업 매출은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10% 비중을 달성한 바 있다.

40년간 단체급식 및 식자재유통사업과 식품, 외식사업까지 식음산업 전반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덕분에 아워홈은 글로벌 어느 지역에서나 최적의 식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제조, 물류, 구매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에 탄력을 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워홈은 지난 1일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 격려금’ 지급을 확정해 공지하고 5일 본사를 시작으로 해외 법인 등 격려금 지급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달성도, 개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격려금 지급률을 결정했으며, 직원 97%가 격려금을 수령했다. 격려금은 인당 최대 1190만원이다.

이번 혁신 성장 격려금은 지난 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 의미와 함께 미래 푸드테크 기업 전환에 필수적인 혁신 노력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지급됐다.

아워홈은 지난해 초 세웠던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직원 처우 개선 및 격려를 위해 별도 격려금 규정을 마련해 지급을 결정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샤커피, 롯데백화점에 전용 브랜드관 오픈

오는 7월, 청담동에 오프라인 1호점

롯데백화점이 모로코 헤리티지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Bacha Coffee)’의 국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9월 ‘바샤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및 유통권 단독 계약을 체결하고 22일 롯데백화점몰에 ‘바샤커피’ 전용 브랜드관을 오픈하며 온라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에는 청담동에 오프라인 1호 매장을 오픈해 롯데백화점만의 프리미엄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몰에서는 드립백과 원두 등 다양한 ‘바샤커피’ 상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언제 어디서나 간



바샤커피 /롯데백화점

편하게 ‘바샤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커피 드립백’이다.

기념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22일부터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250명에게는 ‘바샤커피’ 토트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클리오, 日 현지 글로벌기업 도약 발판 마련

두원·키와미, 9.3억만엔에 인수
유통경쟁력 강화로 매출확대 목표

클리오가 일본 현지에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클리오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일본의 화장품 판매업체 ‘두원’과 화장품 수입 대행업체 ‘키와미’ 등 총

두 개사의 지분 100%를 9억3000만엔(약 83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클리오는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매출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클리오에 따르면 두원은 클리오의 전략적 파트너사로 지난 2013년부터 일본 시장에 클리오의 색조 브랜드 제품을 공급해 왔다.

일본 화장품 시장은 전체 매출의 약 65%가 오프라인 채널에서 창출되고 있는 만큼 각종 버라이어티 스킵, 드럭스토어 등이 발전했다.

이와 관련 클리오는 두원이 오프라인도 소매유통에서 영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클리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 법인 ‘클리오재팬’을 정식 설립해 일본 현지에서 안정적 판매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친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캡슐형 세제로 시장변화 주도

해피홈 파워캡슐 울인원 소프트엑스

유한양행이 액상형 세제에서 캡슐형 세제로 세탁세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세탁세제 ‘해피홈 파워캡슐 울인원 소프트엑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 ‘해피홈 파워캡슐 울인원 소프트엑스’는 캡슐형 제품으로, 기존 세제의 울인원 기능에 ‘소프트엑스’ 기술을 적용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소프트엑스’ 기술은 기능성 의류를 구성하는 폴리에스



‘해피홈 파워캡슐 울인원 소프트엑스’ /유한양행

테르와 나일론의 신축성, 투습도, 건조 속도 등을 세탁 후에도 유지해 준다. 또 해당 기술은 재오염 및 이염 방지, 색감 보호 등의 효과도 제공해 섬유 손상과 색바램을 최소화한다. /이청하 기자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Festa & **green**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LG전자, 연구·전문위원 발탁... 고성과 조직 전환 속도
 LG전자가 미래준비 경쟁력 강화와 높은 성과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전문위원을 발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연구위원 18명, 전문위원 8명 등 총 26명을 선발했다. 임명식에는 조주완 LG전자 사장 등 최고 경영진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건넸다. /LG전자



쿠팡폴필먼트서비스, '창덕궁 숲 여행' 나들이
 쿠팡폴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장애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덕궁 숲 여행'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창덕궁 숲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정전, 회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내 주요 건물을 둘러보았다. 정종철 쿠팡폴필먼트서비스 법무 부문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쿠팡



LG생활건강, 갑진년 '학교야 옷자' 첫 수업
 LG생활건강이 학교 현장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5일 서울 봉화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서 '학교야 옷자' 올해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수업은 ▲공감 ▲감정조절 ▲긍정적 생각 ▲다름 인정 ▲디지털 소통 ▲방어 행동 등 총 6개 과목으로 이뤄졌다. /LG생활건강



SK매직, '행복두끼 프로젝트' 참여... 720만원 기탁
 SK매직이 결식우려아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21일 SK매직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결식우려아동 행복도시락 지원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 전달식을 갖고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금 720만원을 기탁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SK매직 김승희 영업실장, SK매직 김서경 서부6총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매직



풀무원푸드앤컬처, 병역이행자 우대 사업 동참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1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병무청과 '나라사랑 가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병무청의 병역이행자 우대 사업에 동참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도훈 대표(오른쪽)와 이기식 병무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SK온, 美 '에디슨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부문 '코발트 프리 배터리' 동상

SK온이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 '에디슨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SK온은 자사 코발트 프리(Co-Free) 배터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 '칼루사 사운드(Calusa Sound)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에디슨 어워즈(2024 Edison Awards)'의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Smart Transportation)'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SK온은 지난해 NCM9 배터리로 동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한 것도, 2년 연속 수상한 것도 SK온이 유일하다.

SK온이 만든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기존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뺀 제품이다.



김상진 SK온 플랫폼연구담당(오른쪽)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 '칼루사 사운드(Calusa Sound)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에디슨 어워즈(2024 Edison Awards)' 시상식에서 롬 메인스(Rob Manes) 에디슨 유니버스 사업개발 부사장으로부터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Smart Transportation)' 부문 동상을 받았다. /SK온

통상 코발트가 없으면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명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SK온은 단결정 양극재와 독자적 도핑 기술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고유의 하이니켈 기술과 고전압 셀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밀도 역시 높였다.

행사를 주관한 '에디슨 유니버스' 재단은 기술적 우수성과 함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SK온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SK온 김상진 플랫폼연구담당은 "SK온의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 노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오일뱅크-현대백, 순환경제 사업 맞손

백화점 폐비닐 1000t 재활용 '폐식용유 등 사업영역 확대'

HD현대오일뱅크가 현대백화점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HD현대오일뱅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R&D 센터(GRC)에서 현대백화점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수거한 폐비닐 1000톤이 열분해유 공정을 거쳐 HD현대오일뱅크의 친환경 소재 생산에 투입된다. 여기서 나온 친환경 소재는 새 비닐로 재탄



(왼쪽부터)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업무 협약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생해 전국 현대백화점에 공급,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백화점과의 폐비닐 재활용 협력으로 안정적인 열분해유 원료 확보와 친환경 소재 생산이 가능하고, 현대백화점은 폐비닐 재활용이 가능하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폐비닐 수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폐기물 감축에 앞장서겠다"며 "폐타이어,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역시 전사 역량을 투입해 순환경제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역대 최다 2200명 참가... 123층 2917개 계단 '성큼'

롯데월드타워 '2024 스카이런'

누적 참가자 1만명 돌파

롯데월드타워가 지난 20일, 수직마라톤 대회 '2024 스카이런(SKY RUN)'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층에서 123층까지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며 한계에 도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높이'의 수직마라톤 대회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왔으며 작년까지 누적으로 8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시작 전 개최식에서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직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도전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



2024 '스카이런(SKY RUN)' 대회장 /롯데물산

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하루 큰 성취감과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대 가장 많은 총 2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미국, 일본, 말

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참가자들과 2년 연속 참가한 82세 최고령, 3세 최연소, 해양경찰 및 소방관 등 이색 참가자들이 국내 최고 높이 '123층 총 2917개'의 계단을 올랐다.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올해 신설된 성인 보호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하는 '키즈런'으로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안봉준 씨가 가장 빠른 19분 27초의 기록으로 남자 부문 및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여자 부문에서는 김보배 씨가 22분 59초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 신설된 '키즈런'에서는 지적장애 아동 김태경 보바스 어린이 환아가족이 참가해 레이스 구간의 절반인 60층까지 오르며 희망을 선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앙대-서울시 ICT 융합안전학과 운영

중앙대학교와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안전전문가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계약학과인 ICT 융합안전학과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앙대에 개설되는 ICT 융합안전학과는 재난 안전교육과 자격취득 등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ICT 융합안전학과는 석사과정으로 개설되며, 서울시 공무원 20명이 매년 입학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ih@

숭실대 융합인재양성 사업 고도화

숭실대학교가 18일 고신대학교와 국립근산대학교, 명지대학교, 환경국립대학교와 함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사업(HUSS)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문제해결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사회구조 변화 대응 위한 융합교육체계 구축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적 융합인재 양성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대학 간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광동제약 'KD굿사이클링' 마무리

광동제약이 4월 장애인인의 달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동제약은 굿월스토어와 함께 'KD굿사이클링'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는 'KD굿사이클링'은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들이 재사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행사다.

이번 캠페인에서 광동제약 임직원이 모은 기부 물품은 의류, 잡화 및 도서, 기타 생활용품 4000여 점이 다. 지난 2023년 열린 1회차 대비 약 70% 증가했다. 기부 물품들은 굿월스토어 밀알성남단대오거리점에서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 특히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부음

▲박성일(시티오나인 대표이사)씨 별세, 고최정씨 남편상, 서연·민규 부친상 = 21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장지 보광사 영각전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회생채권도 조기변제 받을 수 있어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지만, 단순히 말하면 계속적인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회생채권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도중에 임의적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회생채권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조기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회생채권자가 중소기업자로서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다(채무회생법 제132조 제1항, 제2항). 즉, 회생채권자가 소상공인이고 그가 가지는 채권이 매우 소액이어야 하며, 이를 변

제하지 않으면 채권자 역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의 영업에 지극히 필수적인 거래처가 거래 중단을 선언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채무자는 임의로 위와 같은 변제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법원에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동종의 채권자에게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한다'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른 회생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회생채권에 대한 조기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 몫이 될 채무자의 보유 재산이 너무 적거나 조기 변제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은 조기 변제를 허가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리 채무

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생채권자이고 해당 채권자가 거래 중단을 무기로 조기 변제를 압박하더라도, 거래처 변경이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기변제보다는 영업을 위한 거래처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는 소상공인인 채권자들에게 있어 채권이 변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 경색에 빠진 자신의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채무자로서도 오랫동안 신의를 쌓아온 필수 거래처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다. 단 조기변제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기변제의 필요성에 대해 관리위원 및 법원과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철저히 채무회생법의 취지와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과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수의 사례를 경험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여·야 협치로 '위기설' 넘어야



**기지수첩
김대환
(건설부동산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신규 등록한 건설업체는 줄고, 폐업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 대비 68.76%(229곳)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3곳에서 104곳으로 25.3%(21곳) 증가했다. 폐업한 전문건설사의 경우 지난달 618곳으로, 1년 전에 비해 10.75%(60곳) 늘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

구)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1월(5만7925가구)부터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에서 1만1867가구로 4.4%(504가구)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선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왔다. HUG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인 안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에 해제된 바 있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달 '건

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과도한 시장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부동산PF 정상화 추진 위한 금융·건설업계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4월 위기설'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PF 정상화 계획을 외부에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집행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 위기설'이 실현되지 않게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2일 (음 3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오리엔트 선이 나에게 돌아오니 행복. 4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줄흔은 신중하게 판단. 60년생 북 치고 장구 쳐야 하니 바쁘다. 7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84년생 동업을 하려거든 의심하지 말자.
- 소** 37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소임을 다한 것이다. 49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다. 61년생 예의 바른 행동을 나를 높여 준다. 73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85년생 모든 인연과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 호랑이** 3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50년생 자친 마음을 자신의 기쁜 소식으로 달랠다. 62년생 더 배우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 74년생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따르자. 86년생 여유를 두고 덕을 베풀자.
- 토끼** 3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51년생 정보를 새로운 인맥으로 얻게 되니 주변을 잘 살펴라.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다. 75년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87년생 주변에서 좋은 말을 들어 행복.
- 용** 40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52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다. 64년생 힘들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6년생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유연성을 갖자. 88년생 물질이 귀한 것을 젊은 날 알아야.
- 뱀** 41년생 물은 약하게 흐르므로 도리어 강한 힘이 있다. 53년생 가족 간의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 65년생 자식을 너무 엄하게 가르치지 마라. 77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89년생 오솔길을 혼자 다니니 더욱 외롭다.
- 말** 42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 54년생 투자보다는 평소 애 간수를 잘해야 한다. 66년생 삶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돈을 모으는 것이다. 7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해보라. 90년생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자.
- 양** 43년생 시간은 금이니 활용을 잘해야 한다. 55년생 신 앞에서는 작은 것 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67년생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감수. 79년생 연인에게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91년생 환경보존 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을.
- 원숭이** 4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56년생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 좋은 일이 생길 징조. 68년생 강을 건넌다면 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80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년부터 양보하는 마음. 92년생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
- 닭** 45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57년생 친구가 형제자매보다 낫다. 69년생 단체에서는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가 있게 마련. 81년생 성공을 거두려면 고생과 괴로움이 따른다. 93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출현.
- 개** 46년생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원활히 풀리는 법이다. 58년생 수레에 두 바퀴가 필요하다. 70년생 새끼터라 좋은 것도 아니요 낡은 것도 좋은 것이 있다. 82년생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94년생 죽은 나무를 살려보려 애쓸 것 없는데.
- 돼지** 47년생 옛 상처는 잊고 살자. 59년생 한바자 책에서도 이익 앞에서는 용감해질 수 있다 했다. 71년생 더러워진 땅에서 작물은 자랄 수 있지만. 83년생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95년생 특별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김상회의 4월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

뭔가 안타까운 일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면 “하늘도 무심하지..” 하는 탄식을 한다. 그만큼 하늘은 뭔가 정의롭고 이익에 휘둘리는 인간들과는 달리 만물을 품으려 공평무사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권선징악을 관장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들은 당연히 인간들의 머리 위, 저 보이지 않는 높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묵묵히 시절에 맞게 순리대로 순환한다. 움직이며 알 듯 모를 듯 인간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어져 온 그것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人在天在看 蒼天有眼).” 이 말은 작년 10월 말 즈음에 유명을 달리던 리커창(李克強) 전 중국 총리가 했던 말이다. 도가와 유학의 고장 출신다운 통찰에서 나온 철학이 엿보인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필자가 정치에 대한 안목은 깊지 못하지만 평소 리커창총리가 보인 소신과 신뢰 있던 모습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지을 수 없다. 통치자들은 대부분 최고의 권력을 쥐면 위장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리커창은 뭔가 합리적 소신과 실행력을 겸비한 인물로 느껴졌다.

그가 무슨 뜻으로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고 했던 건지는 당시 중국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난세에 있어 결출한 인물은 시샘과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판에 있지 않더라도 푸른 하늘도 눈이 있다는 이 말만큼은 개인이 되었거나 공인이 되었거나 새겨들을 만하다. 양심과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까지는 속일 수가 없어 아무리 스스로 합리화를 할지라도 마음의 지도에 명확히 각인된다. 업이 스스로를 과보의 길로 인도한다. 업만이 자기 재산이라는 석가모니 말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닉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서 ‘의대 열풍’ 불더니 고3 이과생 비율 3년만에 감소”

내년도 인문·자연 구성비 분석
탐구영역 과탐 44.9%, 2.3%p↓
사탐 응시 55.1%로 2.3%p 늘어
‘수학·과학 학습부담’ 가장 큰 원인

〈2025학년도 고3 인문, 자연 구성비(3월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자료=종로학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문	385,829	56.2%	327,972	54.7%	321,994	52.8%	350,492	55.1%
자연	300,543	43.8%	271,576	45.3%	288,229	47.2%	285,536	44.9%
계	686,372	100.0%	599,548	100.0%	610,223	100.0%	636,028	100.0%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돼 온 가운데, 지난달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따라 수능에서는 이과 ‘N수생’이 많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고3 이과생은 지난 3월 학력고사와 본 수능 사이 점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종로학원이 지난 3월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2025학년도 고3 인문·자연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44.9%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47.2%로 2.3%p 하락했다. 반대로 사회 탐구를 응시한 학생은 55.1%로 지난해(52.8%)보다 2.3%p 늘었다. 통상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은 문과로, 과탐을 응시한 학생은 이과생으로 추정한다.

이과생 비율이 축소된 것은 국어와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3월 학력평가 기준, 이과생 비율은 ▲2022학년도 43.8% ▲

2023학년도 45.3% ▲2024학년도 47.2%로 계속해서 늘었다. 최근 의대 열풍에 더해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어영역에서도 이과 학생들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지난해 37.6%에서 지난 3월 37.4%로 축소됐다. ‘언어와 매체’는 지난해 수능 선택 학생 중 62.6%가 과탐을 선택, 사탐 선택 학생은 32.8%로 이과 학생이 주로 선택한다. 반면 문과 학생들의 선택 비율이 높은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 62.4%에서 62.6%로 증가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비중이 43.4%에서 43.8%로 확대됐는데, 최근 문과생들도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점을 인식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종로학원 측 설명이다.

이과 학생들만 주로 응시하는 ‘기하’ 과목 선택 비중은 2.7%에서 2.3%로 줄었다.

이과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과 비율이 줄어든 것은 수학·과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 수능 이과 비율은 지난달 학력평가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수능 주관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6·9월 모의평가와 달리 재수생 등 고교 졸업생은 참여하지 않는데,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이과 ‘N수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고3 이과생 비율 줄어들어 의대 내신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5월 의대 모집정원 확정표에 따라 이과 반수생 가세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의대 뿐만 아니라 이공계 진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반수가 늘어날 수 있어 고3 이과생은 3월 점수와는 (문과에 비해) 본 수능 점수 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모습.

/서울시

서울시, 교통시설 등 2104곳 안전점검

전문가·공무원 등 190명 참여

서울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간 시는 교통시설(185곳),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복지시설(203곳),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건축·전기·소방 포함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 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신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 금지·철거·위험 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 조치 후 시설 보완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안전 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safewatch.safema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원당역세권 구도심 활성화 나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고양시가 대표적인 노후·쇠퇴지역인 원당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원당 구도심은 1961년 원당면으로 고양군청이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하지만 1996년 일산과 화정 개발, 2004년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인근 지역 대형마트 입지로 원당지역 상권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 지정됐으나, 원당상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결국 해제되고 말았다. 하지만 올해 고양은평선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면 원당

구도심 지역은 기존 3호선과 신설되는 고양은평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고양형사 혁신지구 건립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원당버스차고지 조성사업,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모색 중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원당역사 주변 공공영개발 ▲원당상업복합구역 정비·활성화 ▲현 청사 주변 정비·활성화 ▲원당 고양대로 상정가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중랑구 동진학교 2027 개교 예정
성동구 성진학교 2028년 3월 개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 진학 수요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일 ‘제44회 장애인 날’을 맞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9월 중랑구 동진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성동구에는 성진학교가 오는 2028년 3월 문을 연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교육 진학 수요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진학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초등학



/서울시교육청

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희망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확대한 진학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진학수요에 맞춰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교육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

정보 SNS 채널을 개발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특수교육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2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 교육과정 및 수업나눔 전문가 연수 등 맞춤형 연수도 이어간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격증 취득 지원과 현장 중심 진로·직업 체험 교육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지원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가칭)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존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넘어 공존을 향한 공감의 특수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이란과 충돌 후 지지율 회복”...추락 하던 네타냐후 기자회견
▲미,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시사...서안지구 인권유린 혐의

▲미, 중국 겨냥 ‘중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보류할 전망
▲필리핀, “전 정부·中 남중국해 합의 국익 반하는 것...구속력 없다”



▲이어지는 엔저...일본 내년 GDP 인도에 추월당할 듯
▲미 하원, 608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안통과...러 강력 반발



전문가 영입하고
신규매장 열고...
'와인사업' 공들여
나



Life

“친환경 제품 구매”
제약업계,
소비자 트렌드 집중
L2



“유리공예, 손으로 완성해 내는 아름다운 예술”



유리공예가 전 형 준

“유리공예는 나를 계속 도전하게 만든다. 물성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아무리 연마해도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방식을 할 때면 다시 연습해야 한다.”

유리 공방에서 만난 전형준 유리공예 작가(29)는 유리공예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리의 특성과 공정을 이해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등 꾸준한 도전을 통해 공예가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다.

전 작가가 가진 유리공예에 대한 열망은 그가 14살 때 베네치아를 방문해 유리공예 시연을 본 것에서 시작했다. 평소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베네치아 공방이 담긴 작품들은 인상적이게 다가와 유리공예의 세계를 엿보게 해줬다. 이후 공예를 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남서울대학교 유리공예 학과에 진학했다. 특히 전통 베네치안글라스 기술을 동경하며 자신만의 베네치안 스타일을 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통 베네치안글라스 기술 동경 유리 특성·공정 이해해 기술 연마 작품 만들 때 시각적 즐거움 담아

그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손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술 연마에도 오랜 시간 투자를 해오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작품이든 본인 손으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심미적 가치와 작가의 가치관을 담아 작품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작가는 “대학 시절 공예 실습실 관리 자직에 임하면서 전문적으로 유리공예 기법을 배우게 됐다”면서 “처음엔 열기에 적응도 해야 하고 파이프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다”고 말했다.

유리는 실생활에 밀접한 소재다. 유리는 1000° C 이상으로 가열하면 완전한 액체 상태가 된다. 마치 벌꿀과 유사하다. 이후



전형준 유리공예가가 '2023 공예트렌드페어'에서 개인 부스를 개최했다.

/전형준 작가



뜨거운 유리를 파이프에 말고있다. /차현정 기자

액체 상태의 유리를 파이프에 말아서 유동적인 상태에서 점점 고체화될 때 입김과 손으로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원하는 형태로 성형을 하고 이후 완성을 하면 500° C 정도의 서늘가마에 넣어 천천히 약 12시간 식혀주어야 비로소 완성작이 된다.

전 작가가 가장 주력하는 기법은 '블로잉 기법'으로 고체상태의 유리를 1200° C의 용해로에 녹여 성형하는 기법이다. 블로잉 기법은 파이프 회전운동과 중력을 이용하고 유리의 성질을 잘 파악해야 되는 기법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연마하고 실습해야 유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특히 그는 블로잉 기법 중에서도 색유리

에 투명유리를 말아 뽑아내는 유리막대(cane)를 사용하는 작업을 주로 한다. 이는 유리 막대를 뽑아 선 패턴을 연구하고 만든 패턴들을 조합한 뒤, 다시 가마에서 파이프에 롤업해 유리를 만드는 기법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도 '가블렛'에 애정을 보였다. 가블렛은 손잡이가 달린 잔을 의미한다. 가블렛 글라스는 컵, 손잡이, 바닥 등 각 파트들을 만들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각 부분들의 고유한 형태를 고려해 작품의 전체적인 미적인 효과를 형성한다.

전 작가는 “전통 베네치안 스타일 기반으로 가블렛을 제작했으며 다양한 패턴 연구를 결합으로 디자인했다”면서 “블랙 패턴과 화이트 패턴을 연구해 잔에 적용했고, 유리 케인을 통해 형성되며 나타나는 뚜렷한 대비를 통해 시각적 효과와 어둠과 빛, 형태와 공백 등을 통해 상반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작품을 만들 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담는 데 매진한다. 전 작가는 “본 인간의 개성을 비롯해 유리가 갖는 투명하고 빛나는 느낌을 작품에 담아 어디에 뒤도 시선이 가게 만들려고 한다”라며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잔이 가지는 보는 즐거움과 사용했을 때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잔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공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작품이 깨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받는 자세'를 꼽았다. 유리 소재 특성

상 온도에 엄청 민감하고 작업하는 행동 모든 것들에서 바로 반응이 되는 예민한 소재라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작가는 “아무리 실력 좋은 유리공예가 라도 유리가 깨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리가 깨지거나 파이프에서 떨어져서 실패하는 일이 속상할지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시 파이프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이프를 돌리는 모든 순간을 집중한 뒤 완성을 해내 가마에 넣는 순간에 가장 희열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가마에 넣는 순간 가장 희열 느껴 공예의 기술적·장인정신 중점 뒤 실용적·심미적 가치 등 표현해야

또한 그는 공예가의 자질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공예가가 지는 의미와 기술적 장인정신을 가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예는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수록 실용적 기능도 담고 있어야 하며 심미적 가치도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작가의 향후 목표는 자신만의 유리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오는 5월에 전시회가 있어 준비중이고 앞으로 꾸준히 활발하게 공예가로서 활동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 저의 작품들이 더욱 관심을 받게 되면 저만의 유리잔 브랜드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작품 '가블렛'.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U-23 불발' 스톡시티 배준호, 폴
타임 활약... 최고 평점 기록
▲ 김민재, 4경기 만에 선발 복귀... 59
분간 철벽 수비 활약 /사진 뉴시스

▲ 이정후, 1회말 시즌 1호 홈런... 8회 2
루타 쳐내며 팀 승리 이끌어
▲ 'U-23' 한국·일본 등 5개 팀 8강 확
정... 대진표 윤곽 드러나



▲ '판정 논란' 최준용, “로스 짜증날 수
있어... 하지만 터프하게 나갈 것”
▲ '햄스트링 부상' 황희찬, 선발 복귀...
50분간 컨디션 회복 선보여 /사진 뉴시스